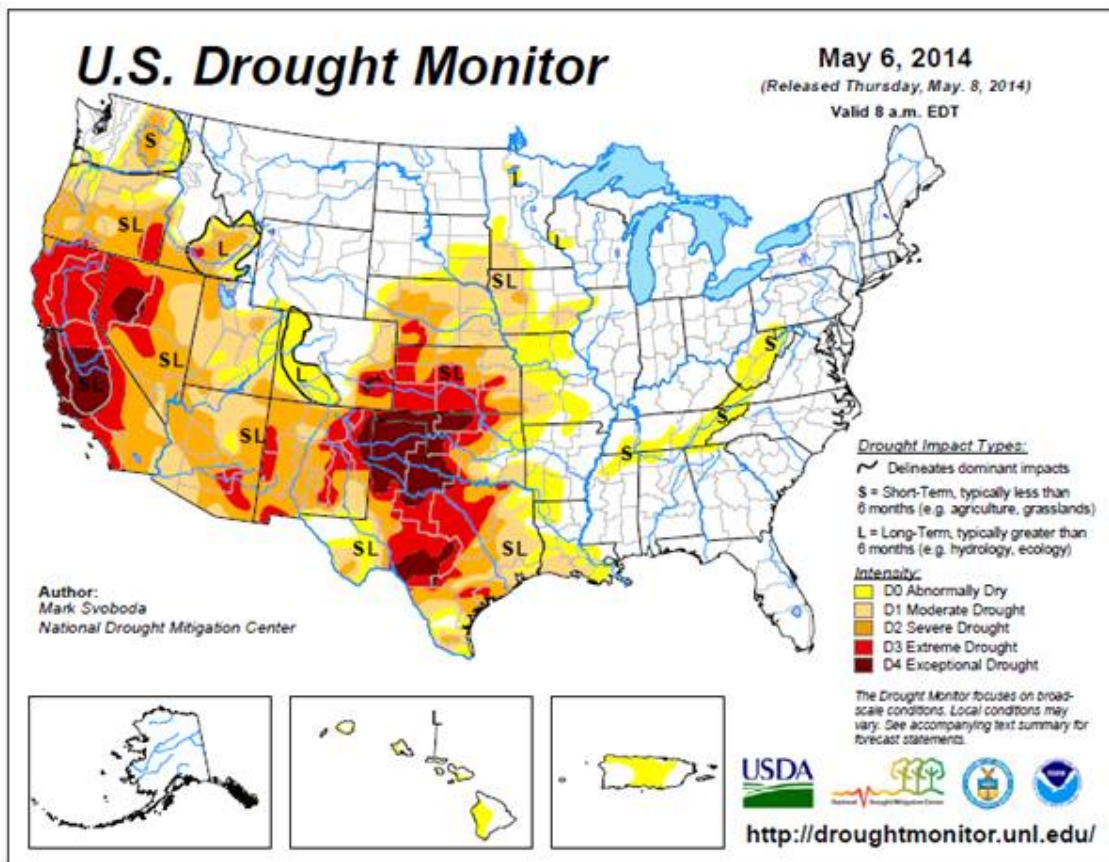


5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19)

□ 미국 기후 현황(05/04~05/10)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며칠간 지속되었고 작물의 파종을 앞당겼으며, 남부와 중서부 지역 여름작물의 출수와 생육상황을 증진시켰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높았고, 평균적으로 5~ 10°F를 기록하였다. 남부 콘벨트 지역과 대서양 연안 주들은 연속적으로 여름작물의 파종이 이루어졌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국지적으로 중부 걸프만 연안, 중남부 미시시피, 오하이오 계곡과 같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좀 더 북쪽 지역의 경우, 차고 습도 높은 날씨로 인해 옥수수, 대두, 보밀의 파종 작업이 방해받았다. 북부 평야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5°F을 유지하였다. 남부 고원평야지역에서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폭우가 내리기도 하였다. 이 지역 주간 강수량은 2~4인치 가량이었으며, 북동부 텍사스지역의 경우 좀 더 많은 양을 기록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05/05~05/11)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작물 파종 진행과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남부 대평원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가뭄이 가속화되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강수량이 3인치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록키산맥의 동부 전 지역(북부 대평원, 대호지역, 뉴잉글랜드 지역 제외)에서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높거나 평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캔자스, 미주리, 오클라호마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12°F를 기록하였다.

■ 옥수수

콘벨트 지역에서는 좋아진 날씨와 야외 조건으로 인해 한 주 동안 파종율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1일, 전국 옥수수 파종율은 54%로, 전년대비 33%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진행 상황은 콘벨트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오와주는 47%p로 앞섰으며, 인디애나주에서는 41%p, 일리노이주에서는 47%를 기록하였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옥수수 발아율은 18%p 수준으로, 전년대비 13%p 앞선 상황이며, 5년 평균대비 7%p 뒤쳐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두

주말 기준, 전국 대두 파종율은 20%로, 전년대비 15%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 조건 역시 대두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네브라스카주는 25%p 앞섰으며, 일리노이주에서는 23%p, 인디애나주에서는 20%p 앞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가을밀

5월 11일 기준, 출수기에 진입한 가을밀은 44%로 전년대비 16%p 앞섰으나, 5년 평균 대비 2%p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3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 보다 다소 낮고, 전년대비 2%p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쌀

5월 11일 기준, 금년 쌀 파종율은 75%로 전년 동기대비 8%p 앞섰고, 5년 평균 대비 2%p 빠른 수준이다. Mississippi 지역의 경우 파종율은 평년보다 앞선 수준이나, Arkansas, Louisiana, and Missouri 지역에서는 5년 평균 대비 빠른 속도로 파종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에서 발아율은 53%로 전년도 동기 대비 6%p 앞섰지만, 5년 평균 대비 5%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기후 현황(05/04~05/10)

■ 유럽: 대체로 비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겨울 작물에 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거나 정지되었다. 대서양 연안에서 발생한 폭풍은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발틱의 넓은 곳에 소나기(5~50 mm)를 내리게 하였으며, 밀과 유지식물의 재생산을 전망에 유익한 조건을 유지시켜주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강수량은 독일 지역에서 특히 환영받았으며, 25mm를 초과해 내린 비는 독일 지역에

서 지속된 가을-겨울 가뭄을 해갈시켜 주었다. 좀 더 동쪽 지역인 발칸반도의 경우, 천천히 이동하는 지중해 폭풍이 많은 양의 폭우(25~60 mm)를 내리게 하였다. 따라서 농작업은 중단되었지만 재생산에 진입한 겨울 작물에는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켜주었다. 소량 또는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린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따뜻한 계절 작물(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요구되는 관개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페인 지역에 한정되어 건조한 날씨가 발생하였으며, 작물의 성숙과 초기 수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불안정하게 싸늘한 날씨가 대부분 지역에 지속되었고, 따뜻한 날씨는 남부와 동부 작물 생산 지역에 머물렀다. 정체된 전선의 경계가 북부지역에서는 서늘한 기온을 나타내게 하였고,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서부 농업지역에 나타나게끔 분리되어 나타났다. 벨라루스, 북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형성되어 겨울 작물의 생육이 지연되었으며, 밤 기온은 영하 3~0°C를 유지하여 작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북부지역은 폭풍 전선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넓은 지역에 소나기(5~35 mm)가 내렸다. 강수량은 겨울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었지만 봄밀과 여름작물의 파종시기를 재촉하던 것을 완화시켰다. 남부와 동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평년보다 3°C 높음)이 남부 러시아와 남동부 불가랑 구역의 가을과 봄 작물의 발육상황을 가속화시켰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지역에서는 작물의 봄철 발아에 유익한 소나기가 내렸으나, 북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중국 남부 대부분의 지역과 양쯔강 유역에서는 폭우(50~150 mm)가 내렸으며, 일모작 쌀과 다른 여름작물들의 수분 공급을 증진시켰다. 지난 2주 동안 강수량은 작물의 수분 이용가능성을 향상시켜주었다. 북중국 대평원에서는 소나기(15~50 mm)가 내렸으며, 새롭게 파종된 여름작물인 면화, 옥수수, 땅콩, 대두와 같은 작물에 유익하였다. 그러나 가을밀의 성숙 단계인 충전중인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조건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여름작물들이 성장하는 시기인 요즘 평년보다 다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비(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은 곳도 있음)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 파종 작업은 지연되었지만, 발아와 출수에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 남부 호주지역인 Victoria와 New South Wales에서는 15~50 mm의 비가 내리, 겨울 곡물과 유채를 일부 지역에서 파종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초기 작물의 생육에도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북부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 지역에 팽배하였으며, 여름작물의 수확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 작물의 발아와 자리잡기에 필요한 표토층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호주 남부와 동부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1~2°C 낮았고, 호주 서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기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지난 주 기록된 강수량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옥수수, 대두, 면화의 수확률은 낮추었다.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25~75 mm)가 내렸으며, 2주째 농작업을 방해하였고, 달갑지 않은 비로 인해 성숙된 면화를 유지되게 하였다. 주 초반 대체로 비가 내렸고, 더욱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20°C 후반)가 과도한 수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북부 지역(Salta and Tucuman)에서는 소량에서 적당한 양의 비(5~25 mm)가 내렸지만, 서부 면화 생산지역(Santiago del Estero와 서부 Chaco와 Formosa)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평년대비 기온이 높았다(낮 최고 기온은 20°C 중후반).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는 10mm미만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남부 Cordoba와 북부La Pampa에서 남동부 Buenos Aire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mm의 강수량을 기록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옥수수과 대두 수확이 지연되었다. 5월 8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률은 56%p로, 전년 65% 대비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화 수확률은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수확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폭우가 내려 중부 브라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와 면화의 관개율은 높아진 상황이다. 서부 생산지역의 총 강수량은 10~50mm 정도이다. 남동부 대다수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적절히 수분을 함유한 옥수수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평년대비 높은 기온(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은 남동부 작물의 성장에 건조한 영향력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25mm 초과)는 Rio Grande do Sul 지역에 지속되었으며, 가을 밀 자리잡기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였다. 북동부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와 코코아, 다른 관개작물에도 충분한 수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